

# “우리는, 세월호라는 시간에 10년째 갇혀 있어...”

## ●세월호 참사 10주기 선상추모식

### 진도 침몰해역서 희생자 304명 이름 호명·헌화 등 애도 “안전 사회 만들어달라” 눈물...목포신항선 기억식 열려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희와 세월호라는 시간에 갇혀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7시께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낸 그 바다로 다시 나가기 위해 경기도 안산 등 각지에서 온 유가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떠날 해경 경비함이 준비를 마치고 유가족들은 하나둘 배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뒤이어 4·16재단, 온마을센터 등 ‘세월호 참사 10주기 선상추모식’ 참여자 86명이 모두 탑승하자 배는 못다 핀 꽃들을 삼켜버린 해역으로 출발했다.

오전 10시30분께 침몰 위치를 알려주는 ‘노란 부표’가 보이기 시작하자 유가족들은 애써 잡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망자 299명과 미수습자 5명 등 희생자 304명을 기리기 위한 뱃고등이 3차례 울려 퍼지면서 선상추모식이 진행됐고, 중간쯤 세월호 참사 추모곡 ‘잊지 않을게’가 흘러 나오자 곳곳에서 울음이 새어 나왔다.

유가족들을 대표해 추모사를 읽은 고(故) 김빛나라양의 아버지 김병권씨는 “매년 4월이 되면 돌아오지도, 볼 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리워 가슴이 미어진다”며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그 배에 태우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 후회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김씨는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10년 동안 세월호에 갇혀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라며 “(그럴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유가족은 차례로 호명되는 희생자 304명 가운데 자녀의 이름이 나오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바다에 헌화하고 있다. /정은정 기자

바다 위에 흰 국화꽃을 띄운 한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힌 채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를 보러 왔다

이호정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를 보러 왔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 마음이 아프다”며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애써 슬픔을 삼켰다.

선상추모식을 마친 뒤 유가족 등은 목포신항에 거처 중인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 주관으로 오후 2시30분에 열린 기억식에 참석, 애도를 이어갔다.

추모 묵념 후 이어진 기억사에서 김인숙 0416재단원과 가족협의회 부대표는 “10년이 흘렀어도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대로”라며 “가장 두려운 것은 희생자들이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김종민 이태원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세월호와 이태원 모두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며 “10년이 지났어도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에 참사로 인한 아픔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생명안전 사회를 위한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낭송 등의 순서 후 선체 앞에서 헌화하는 것으로 기억식은 마무리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옮겨진 진도 팽목항에선 이날 세월호참사10주기진도연대 주관으로 추모·기억식이 열렸고 이 밖의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정은정 기자

## ‘폭행 재범·양육비 구걸’ 아동학대 부모들 잇단 처벌

### 신체적 학대 父 집행유예...정서적 학대 母 실형

아들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재차 학대를 일삼은 아빠와 자녀에게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엄마가 아동학대죄로 각각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월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A씨는 부인을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을 훼손하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 부장판사는 “A씨가 가정보호사 권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을 때린 점 등에 비취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법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

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0대·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2세였던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력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외제차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썼다가 들들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B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주거지에서 나온 뒤엔 아들을 차 안에서 자게 하거나 숙박업소를 전전하게 하는 등 방만한 혐의와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충전한 가스비 2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학대와 방인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인재영 기자

### 구례 요양원서 불...인명피해 無

구례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7분께 구례군 구례읍 한 요양원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어느 정도 꺼졌던 덕에 화재는 신고 접수 30여분만 인 오전 2시17분께 완진됐다.

불이 났을 당시 건물 2층엔 환자 2명이 있었지만, 1층 사무실 일부만 태우고 꺼지는 등 크게 번지지 않은 덕에 대피 소동은 물론 인명 피해도 없었고 소방 추산 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 /인재영 기자

## 합의 안지키려 ‘허위 채무’ 신고 60대 벌금형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될 상황이 되자 허위로 채무를 신고한 6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서울 한 단독주택을 매입,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각자 부인 명의의 지분을 반씩 나눠줬다. 다음 해 3월 A씨는 B씨 측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1억9천500만원을 지급하면 동업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넘겨주고

## 광주서 10대 여중생 실종...이틀째 경찰 수사

광주에서 10대 여중생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틀째 수사 중이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중학생 자녀인 A(13)양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가족으로부터 접수됐다.

A양은 남구 주월동에서 버스를 타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

차한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자주색 상의에 하얀 슬리퍼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양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집을 나섰으며 가정·학교폭력 등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일 오후 7시에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A양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B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 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A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채무를 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2조 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을 선고했다. /인재영 기자

## 무안 김가공공장 불피해액 5억 육박

무안 한 김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5억 원 가까이 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께 무안군 삼향농공단지 내 마른 김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50분께 완진됐다.

화재로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공장 4개 동 중 1개 동(975㎡)과 내부의 김 건조기 등의 설비가 타 소방 추산 4억9천65만6천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재영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